

몽골 최초 한국사찰 '고려사' 개원

대한불교진흥원, 11일 개원법회

각종법회·한글교실 등 운영 계획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최초의 한국 사찰이 건립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11일 세텐담스님(몽골사원연합회장) 금강선원장 활안스님을 비롯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사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최명준 진흥원 사무국장은 축사를 통해 "11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계가 집중적으로 몽골선교에 나서면서 몽골불교대표인 세텐담스님이 진흥원을 여러 차례 방문, 한국 법당건립을 요청해왔다"며 "몽골정부로부터 토지사용 임대 및 매입

허가를 받는 대로 한국전통양식의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울란바토르시 세텐담스님의 주석 사찰에 건립된 40평 규모의 고려사는 한국불교 몽골진출 전진기지로 사용된다.

몽골 전통기옥인 게르 형태로 건립된 이 법당에서는 월 1회 활안스님 초청 현지 교민법회와 몽골인 대상 한국어 및 컴퓨터 강좌 등이 개최된다.

이외 진흥원은 2005년까지 울란바토르시에 한국불교문화원을 건립할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원은 한국문화체험관을 만들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11일 개원한 몽골 울란바토르 고려사법당 내부모습.

불교를 비롯 한국어, 다도, 컴퓨터 등의 무료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가칭)한·몽 불교교류협회를 설립하여 매년 학술대회 개최, 몽골 현지 순례 법회,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류협회 산하에는 장학회가 설립돼 몽골스님들을 한국대학에 유학시키고, 몽골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된다.

2002년부터 몽골현지조사에 참석한 진흥원 송석구 이사는 "몽골인구의 약 70%가 불자라고 하지만 기도와 법회등의 의식이 없어 개신교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서포교를 위해 최근 <심선업> 1만부를 몽골어로 제작해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우리결 우리 신도

반듯한 도량 세울때까지...

서울 자양포교원 한경희신도회 운영위원장

서울 성동구 자양동 주력가 복판에 위치한 상가에는 신도들이 일군 포교당 자양포교원(주지 금당)이 있다.

상가 건물의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자양포교원에는 매일 기도정진하는 불자들이 많다. 타종교가 득세하다시피하여 금당스님이 포교원 설립을 추진하자 우려하는 불자도 있었을 정도였다. 우려도 잠시, 자양포교원이 99년 문을 열고 포교를 시작한 이후 불자들은 꾸준히 늘었다. 한경희 신도회 운영위원장(57, 법명 금강심도) 자양포교원 개원 후야아 절에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신촌내기였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해 일을 마친 뒤에는 집에 들어가 부처님 전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야아 잠자리에 든다. 그래도 어렸을 때 보았던 친정 부모님의 깊은 불심에는 따라가지 못해 늘 부끄럽다고 말한다.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근처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에서 '묵란'이라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운영위원장은 "일을 하다보면 손님 가운데 교회에 다니라고 선교하는 사람이 많다"며 "불교도 더 이상 없어서 기다려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절에 나가고 주지스님을 도와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다가가는 포교' 실천일꾼

식당 일하며 불사에도 동참

한 운영위원장은, 불자가 아니지만 자양포교원에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도움을 주는 남편에게 큰 고맙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한경희신도회운영위원장이 불단을 정리하고 있다.

다. 하지만 지금은 자양포교원 불자 도반들을 챙기는 포교일꾼이 되어 있다.

"예전에는 초과일에만 절에 갔었는데, 주지 금당스님의 포교 원력에 감동 받아 절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드러내지 않는 믿음을 미덕으로 여겼던 관념이 깨진거지요. 금당스님 덕분에 비로소 불자답게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 환희심이 납니다."

한 운영위원장은 바쁜 일과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활동의 이면에 남편의 드러나지 않는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운영위원장에겐 요즘 욕심이 생겼다. 자양동에 누구나 보고 '여기에 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도량을 세우는 불사가 그 것이다. 이 불사를 위해 한경희 운영위원장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서슴없이 털어 놓는다.

박봉영기자



추천의 말

금당스님 자양포교원 주지

99년 5월 자양포교원을 개원하던 날, 주지인 저보다 좋아했던 신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자양동에는 교회는 준비한 데 사찰이 없다고 안타까워 하던 한경희 신

척박한 여건에 희망 안겨줘

도회 운영위원장이 그 신도였지요. 게다가 돈독한 신심으로 법회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신도들을 격려하고 신도회를 꾸려가는 모습에서 자양동의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포교원에 힘을 실어 주는 한 보살에게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박봉영기자

평화실천연대 북한어린이 돕기 첫 결실

5백만원 상당 분유

30일 인천항서 선적

지난 4월 창립된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평화실천연대)가 첫 사업으로 실시한 북한 어린이돕기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에서 발송하는 북한지원

물품에 평화실천연대에서 모금활동을 통해 구입한 500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분유 1차분이 실리게 된 것. 이에 따라 평화실천연대와 평불협은 30일 인천항에서 조선불교도연맹측에 보낼 북한동포돕기 지원물품 선적식을 갖기로 했다.

평화실천연대는 지난 6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광주시내와 무등산 진입로 일대에서 모금활동을 펼쳐 6백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평화실천연대 80여 회원

들은 하루 3시간의 고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모금을 지속적으로 전개, 북한동포 돕기와 포교에 매진하기로 했다.

평화실천연대 이해도 사무국장은 "얼마 안되는 지원품이지만, 창립이후 불교가 척박한 광주지역에서 얻은 첫 결실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광주·



◇평화실천광주전남연대는 매주 일요일 무등산 입구에서 모금운동을 펼친다.

전남지역에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한 평화정신을 심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기자

홍천 물결리사지 금당터 확인



강원도 홍천 물결리사지(강원도기념물 47호)에서 금당터의 위치와 규모가 확인됐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응천)은 지난 5월부터 발굴조사를 한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삼층석탑(보물 545호)에서 북쪽으로 약 20m 지점에서 정면 3칸(13.35m),

측면 3칸(9.25m) 규모의 금당터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남향의 금당터에서는 세 곳의 불상 적심(주춧돌을 받치는 잡석)이 발견돼 현재 보호각 내에 있는 석조비로자나불(보물 542호)과 석조여래좌상(보물 541호), 대좌(보물 543호)의 원 위치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김삼태 학예연구사는 "우협시 적심 주변에서 철편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금당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배치하고 좌협시로 석가여래, 우협시로는 철불(노사나불 혹은 아미타불)을 배치한 '대적광전(혹은 대광명전, 비로전, 화엄전)이

라고도 함"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나팔여조 사찰에서 철불과 석불을 함께 봉안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비로자나불의 대좌 하대 괴임석(사지)이 발견돼 완전한 불상 복원이 가능하게 됐다. 권형진 기자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 내용은 '발원문'

지난 2000년 충남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목간의 내용이 '발원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김영욱(국어학) 교수는 16일 "현재 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인 12.7cm 길이의 목간에 새겨져 있는 '속세결업동생일처시비상문상배래'라

는 글은 부부가 함께 부처님 앞에서, 죽은 뒤 같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발원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글은 '전생(前世)에서 맺은 인연으로 이 세상에 함께 났으니/시비 가릴 양이면 서로에게 물어서/공경하고 절한 후에 사뢰러 오십시오'라고 해석한 김 교수는 "사연사구 형식에 백제인 이두로 기록된 최고의 시가"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하는 백제 시가는 백제 멸망 후 800여 년 뒤 조선시대 <악학궤범>에 한글로 기록된 '정음사'가 유일하다. 목간은 종이 발견되기 전 목골짜나 갈라 글자를 새겨넣은 나뭇조각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표리표나 주민등록증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학설이 유력했다.

권형진 기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짜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지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기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두어야만 하는가?
- ④ 태이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기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기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대강백 무비 스님이 10년만에 다시 펼치는 금강경 강의!

무비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과연 금강경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금강경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지금 이 금강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부처임을 전면에 걸쳐 끊임없이 자각시켜 주는 무비 스님의 감동적인 해설을 만날 수 있다.

금강경을 삶을 통찰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껏 시대와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아 온 경전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이 정성 들여 다듬고 다듬은 우리말 번역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금강경의 의미와 금강경이 던져주는 지혜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강의를 풀어쓴 것으로, 마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듯한 생동감과 일체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무비 스님/신국판/312쪽/9,000원

은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태운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 www.buddhabook.co.kr